

미국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

박원석*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ath and Residential Loc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Wonseok Park*

요약 : 본 연구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보면, 초기 정착지는 한인타운이지만 이후 백인 주류층 거주지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동화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 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이주당시 연령이 높은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한 반면, 고자산층, 이주당시 연령이 낮은 집단, 주택을 소유한 집단, 미혼, 고학력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6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 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주거 입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 및 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은 경제성, 자연환경, 주택 내부시설의 우수성, 백인 주류층 네트워크와 같은 입지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 간에 주거지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인타운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어 : 이주민, 정착경로, 주택 소유구조, 주거입지, 공간적 동화, 한인네트워크

Abstract : This paper aims at elucidating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tion path and residential location, and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housing ownership structure and preference of residential location factors of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mmigration paths of Korean Immigrants are divided by spatial assimilation type and network of mainstream society oriented type. Second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Korean town as a current residential location is selected by low-income class, aged migrants group, housing non-owner group and longer migration period group. Thirdly, migrants tend to retain detached housings in residential area of mainstream society while migration period go beyond 10 years and incomes exceed \$60,000. Finally, according to ANOVA tests on the preferences of residential location factors, high-income and home owners groups more prefer location factors such as economics, natural environment,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1726)

*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 wspark@daegu.ac.kr)

housing interior facilities, network of mainstream society.

Key Words : immigrants, immigration path, housing ownership structure, residential location, spatial assimilation, Korean ethnic network

1. 서론

지금까지 일제시대,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재외동포는 720만 명에 이른다. 흔히 유대인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하듯이, 이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지금도 한국인들은 보다 나은 교육, 취업, 투자 그리고 삶의 질을 찾아 꾸준히 해외로 이주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이주민들은 과거와는 달리 고학력, 전문직, 화이트칼라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의 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고, 이에 따라 한인 이주민들의 적응과정을 탐구하는 정착경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이들 한인 이주민들은 현지 국가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현지 국가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력과 물자의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민족 인적자본의 네트워크화라는 차원에서 한인 이주민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과 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 이주민들이 늘

어나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이주경로와 적응과정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처음으로 겪는 국내에서는 이러한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지혜를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분석으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 이주민의 적응과정과 한인네트워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정착경로와 주거입지와 특성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주민에게 있어서 정착경로에 따른 주거 형태와 주택소유 구조는 현지 정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즉, 따라서 주거 입지와 소유관계의 특성을 통해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자산형성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택이 이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서비스 공간이자, 소유를 통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인 정착지인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인 이주민의 정착 및 주거입지 패턴을 유형화하고, 한인 이주민의 정착 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변화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

이주민은 현지 국가에 정착하고 적응하면서 각 단계에 적합한 주거입지를 선택한다. 이러한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입지에 관한 연구들은 이주민이 많이 분포하여 이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이 필요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주민은 이러한 정착과정에서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통화, 동화, 고립, 주변화 등의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우선 미국 내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입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¹⁾는 다음과 같다.

Park and Iceland(2011)는 미국의 15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관문도시와 신 이주도시간의 분리와 공간적 동화과정을 연구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기존 관문도시에서는 히스패닉과 아시아 인종집단에서 미국 태생이 신규 이주민보다 백인지역과의 주거지 분리 정도가 낮게 나타나, 전형적인 공간적 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신규 이주도시에서는 신규 이주민 역시 주거지 분리정도가 낮게 나타나, 이주민들은 인종 네트워크에 편입되는 과정이 없는 새로운 공간적 동화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tt, Coomes and Izyumove(2005)는 미국의 298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이주민의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 요인이 이주자의 입지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주민의 국적에 관계없이 기혼, 교육수준, 고소득직업이 대부분의 이주민의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성별, 혼인, 직업과 같은 사회인구적 특성들도 주거입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orf, Florax and Beckhusen(2008)은 미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교육수준에 따라 입지선정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의 입지 선호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했다. 연구결과, 이주민의 혼인상태(미혼자가 메트로지역 선호)와 인종(백인이 메트로지역 선호)변수, 학력(고학력자가 메트로지역 선호)변수가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2006)는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대만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경로와 입지패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대만 이주민들은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높고 그 속도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가 보유율에 미친 요인으로는 연령, 기혼, 부, 고학력, 고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Painter, Yang and Yu(2004)는 미국 LA지역에서 거주하는 인종 및 민족 집단별로 주택소유 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인종별로 보면 아시아인들은 백인들과 주택 소유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백인과 흑인 간에는 주택 소유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 개인의 차이(소득, 교육, 이주자 지위)가 주택소유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열(2008)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인종·민족별 거주지 패턴과 거주지 분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민의 거주지 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시카고 거주 아시아인의 출신국가별 거주지 패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거주지 패턴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교외화와 재집중화이며, 공간적 동화론은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유럽의 경우, 다민족 사회로 전환되고, 다문화 정책에 시행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입지 및 주택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Åslund(2005)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최초 입지 및 2차 입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들을 분석했다. 1985년 이전의 스웨덴의 이주자는 망명자가 많았으며, 스웨덴 정부는 이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에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주자가 많은 대도시 지역을 선택했다. 그런데 대도시의 이주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스웨덴 정부는 1985년에 이주자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주자의 재입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에 Åslund는 이러한 이주민의 재입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분석결과, 이주민들은 재입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민족 네트워크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며, 노동시장의 특성을 중요시 하며, 사회복지 혜택에 관심이 많고, 대도시 지역의 선호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선행연구	연구대상 및 지역	연구방법	주요 결과
미국	Park and Iceland (2011)	미국의 15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다변량분석 -기존 관문도시: 전형적 공간적 동화패턴 -신 이주도시: 인종 네트워크 편입과정이 없는 새로운 공간적 동화 패턴
	Scott, Coomes and Izyumove(2005)	미국의 298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다항로짓분석 -기후, 교육수준, 직업이 주거입지에 영향 -연령, 성별, 혼인상태도 주거입지에 영향
	Waldorf, Florax and Beckhusen(2008)	미국 전역	이항로짓분석 -혼인상태와 인종이 입지에 영향을 미침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
	Yu(2006)	LA지역 거주 대만 이주자	다항로짓분석 -대만 이주민들은 자가주택 비율이 높음 -요인: 연령, 기혼, 부, 교학력, 고소득
	Painter, Yang and Yu (2004)	LA지역 전 인종 및 민족 집단	프로빗 분석 -아시아: 백인과의 주택 소유비율 유사 -흑인: 백인과의 주택 소유비율 차이 큼 -이주민 개인의 차이(소득, 교육, 이주자 지위)가 주택소유의 차이를 설명
	정수열(2008)	미국 시카고 거주 아시아 민족 집단	기술통계분석 -시카고 거주지 패턴 변화의 가장 큰 동인은 교외화와 재집중화 -공간적 동화론은 부분적으로 적용
유럽	Åslund(2005)	스웨덴	다항로짓분석 -이주민 재입지 의사결정에서 민족 네트워크, 노동시장 특성, 사회복지 혜택, 대도시지역 여부가 영향
	Zorlu and Mulder (2008)	네덜란드	회귀분석 다항로짓분석 -이주민 재입지 선택에서 서구 이주민과 비서구 이주민 간의 정착목적의 차이 -정착 패턴의 차이: 인적 네트워크, 물질 자본, 언어구사 능력, 종교의 차이를 반영
	Damm(2009)	덴마크	다항로짓분석 -이주민들 떠나게 만드는 푸시요인: 공통국적 이주자의 부족, 임대주택의 부족, 교육기관의 부족, 고실업, 복지 혜택의 부족
	De Coulon and Wolff (2010)	프랑스	다항로짓분석 -왕래전략: 연령이 높고 이주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의사 -본국 귀환전략: 가족(자녀)과 형제의 입지가 영향

Zorlu and Mulder(2008)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최초 입지 및 2차 입지 선택과정을 연구했다. 이들은 이주민들을 서구 이주민 그룹과 비서구 이주민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이주민 그룹 간에서 정착경로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밝혔다. 즉, 양 그룹 모두 최초 입지는 같은 국적 이주민이 많은 지역을 선호했으나, 2차 입지 선택에서 서구 이주민들은 주로 인종 네트워크와 독립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반면, 비서구 이주민들은 인종 네트워크 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주민의 정착 및 공간이동 패턴의 차이가 인적 네트워크, 물질 자본, 언어구사능력, 종교의 관점에서 원주민 네덜란드인과의 동질성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Damm(2009)은 덴마크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공간 패턴 및 이주민의 입지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들을 분석했다. 특히, Damm은 입지 선택에 있어서 이주민들 떠나게 만드는 푸시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러한 푸시요인에는 공통국적 이주자의 부족, 임대주택의 부족, 교육기관의 부족, 고실업, 복지혜택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De Coulon and Wolff(2010)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자가 퇴직 후 주거입지 선택 시, 입지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이주민들의 선택으로는 프랑스에 남든지, 본국에 돌아가든지, 본국과 프랑스를 왕래하며 지내는 3가지 대안이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이주민들은 본국으로 가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아프리카와 중동 이주민들은 왕래 전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이주민들의 입지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연령이 높고 이주기간이 길 수록 왕래전략에는 부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또한, 본국에 귀환하려는 전략에는 가족(자녀)과 형제의 입지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본국

에 자녀와 형제가 있는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인 이주민의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연구

한편, 이주민 연구 중에서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입지 및 주택 소유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주로 한인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을 사례로 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Scott, Coomes and Izyumove (2005)의 한인 이주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한인 이주민은 주거입지 선택에서 한인네트워크, 교육수준, 소득, 기후, 도시화 수준을 선호하는 반면, 인종구성의 다양성, 고용성장률은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Yu and Myers(2007)²⁾는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 중국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동화의 과정과 요인들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멕시코인들은 전통적인 주거지 동화의 경로를 따라, 자가주택 보유자가 될 때까지 인종밀집지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인들은 이주 초기에는 교외지역에 거주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택을 소유하며, 이후에는 민족공동체로 이주하는 공간적 동화와는 다른 경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은 도시 생활양식을 강하게 선호하여 이주 초기부터 중심도시와 백인 지역에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며, 주택 소유를 계기로 백인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성(2006)은 호주 내 한인의 공간적 거주분포 특성을 토대로 한인 이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호주 내 한인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주류사회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의 거주 이동에서 거리 및 방향 편의가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의 질이 양호한 지역

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철·이의한(2011)은 미국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란타의 한인 인구나 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메트로 애틀란타 한인 사회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인 인구나 업체는 메트로 애틀란타 내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인 업체는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2012)은 미국 워싱턴 주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경험 및 주거실태, 주거입지 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개별 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택 소유구조에서 한인 이주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입지 요인은 선호도에 있어서,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하며,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워싱턴 주 이외에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응답자가 워싱턴 주에 이주한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과 유럽의 이주민들은 정착과정에서 공간적 동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입지 선택에 있어서는 연령, 인종, 교육수준, 소득, 부와 같은 이주민의 개인적 요인과 도시, 인종 네트워크와 같은 장소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종, 연령, 소득, 혼인상태 등의 요소들이 있다. 여기서, 한인 이주민에 관한 연구는 박원석(2012)을 제외하면 다른 인종 연구의 일부분으로 연구된 정도다. 박원석(2012)의 경우도 파일럿 연구의 성격이 강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택 소유구조, 그리고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로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인 이주민의 정

표 2. 한인 이주민의 주거입지 및 주택 소유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	연구 지역	연구방법	주요 결과
Scott, Coomes and Izyumove(2005)	미국의 298개 메트로폴리탄 지역	다항로짓모형	-한인 이주민은 주거입지 선택에서 한인네트워크, 교육수준, 소득, 기후, 도시화 수준을 선호
Yu and Myers (2007)	미국 LA지역	다항로짓모형	-멕시코인: 전형적 주거지 동화의 패턴 -중국인: 역 주거지 동화 패턴 -한국인: 주택 소유를 계기로 백인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
김영성(2006)	호주	기술통계분석	-한인 이주민들은 주류사회의 경제 사회적 특성에 접근 -이주민의 거주 이동에서 거리 및 방향 편의
이승철·이의한 (2011)	미국 애틀란타	기술통계분석	-한인 인구나 업체는 메트로 애틀란타 내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박원석(2012)	미국 워싱턴주	이항로짓모형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향 -주거입지 요인에 대한 선호도: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 고연령, 긴 정착기간, 최초 이주지(워싱턴주 이외)의 한인들이 안전/쾌적성을 더 선호

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 소유구조를 유기적 및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다른 선행연구와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3. 연구모형 및 자료

1) 연구모형 구축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LA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 입지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구축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크게 2개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한다.

(1) 연구주제 1: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와 주거 입지 분석

첫 번째 연구주제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를 살펴보고, 정착과정에서 주거입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와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주민들의 주거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론으로 정립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간적 동화(spatial assimilation)이론이다. 공간적 동화이론은 이주민들이 이민국의 지배사회의 삶의 양식과 습성을 채택하고,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거입지의 선택에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시도, 즉 공간적 동화를 시도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이 정착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민국에 대한 정

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와 유사한 인종 또는 민족이 모여 있는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에 접근하지만, 이주국가의 사정을 학습하고 영어구사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의 민족공동체를 벗어나 주류사회에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공간적으로도 주거지를 이동한다는 것이다.

공간적 동화는 이주민이 사회경제적 지위 전반으로 원주민의 지배계층으로 진입·동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원주민의 지배계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배계층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들 지배계층과 공간적으로 근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간적 동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간적 동화는 이주민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 즉 노동시장 여건이 좋고 소득수준이 높은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박원석, 2012). 공간적 동화 이론은 19세기 북미의 자발적 노동 이주자들의 거주행태를 분석하면서 발전되어 온 이론이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이 사례지역에서 이주민의 공간적 동화 현상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Yu and Myers(2007)는 미국 LA지역을 사례로 한국 이주민들이 주택 소유를 계기로 백인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주민의 정착과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다원론(pluralism)³⁾이 있다. 다원론은 공간적 동화이론이 이주민이 다수집단의 제도와 문화로 일방적인 동화를 시도한다는 관점과는 달리,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민족적 차이를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론이다. 즉, 각각의 이주민 민족집단은 정착과정에서 문화적 다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적으로 분리된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를 구성하고, 이러한 민족공동체 내에서 독립적인 학교, 사업체, 교회 등과 같은 시설들을 갖고 있고 이들의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낸다는 것이

다. 이러한 문화적 다원론의 관점을 따른다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길더라도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등 자신의 민족공동체에 여전히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의 정착과 주거이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공간적 동화론과 다원론이라 할 수 있다⁴⁾. 이는 이주민이 정착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학습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주류 사회로 편입하려는 움직임과 여전히 민족공동체에 남아 있으려는 움직임이 공존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적 동화론과 다원론은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한인 이주민은 정착과정에서 개인과 준거집단의 특성에 따라 주류사회에 동화하려는 공간적 동화의 움직임과 한인네트워크에 여전히 남아 있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LA 한인 이주민의 경우 어떤 정착경로와 주거입지를 지배적으로 선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주요 의제라 할 수 있다.

둘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 및 주거이동 과정에서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이주민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Scott, Coomes and Izyumov(2005)에서는 기후, 교육수준, 직업, 연령, 성별, 혼인상태가, Waldorf, Florax and Beckhusen(2008)에서는 혼인상태, 인종, 학력이, Åslund(2005)에서는 인종 네트워크, 노동시장 특성, 사회복지 혜택이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당시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살펴보고, 최초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 각각에 미친 결정요인들을 분석한다. 즉, 이주민이 최초 거주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하고, 또한 현재 거주지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 이주민

의 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한인 이주민들이 정착경로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에 대한 유형 분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한인 이주민의 이주정책과 한인네트워크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제 2: 한인 이주민의 주택소유 및 주거입지요인 선호 특성 분석

두 번째 연구주제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택소유 구조와 주거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한인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이주민들의 현지 정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이주민의 주거형태와 주택 소유구조라 할 수 있다. 즉, 이주민들이 어디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이주민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사회적 계층에 진입해 있는 지 그리고 현지에 적응했는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주민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는 현지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동할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어, 높은 정착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다.

Yu and Myers(2007)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한인 이주민들은 주택 소유를 계기로 백인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를 하는데, 따라서 주택소유가 주류사회에 정착하는 중요한 신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원석(201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는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가주택 소유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 이주민들의 주택 소유구조

를 분석함으로, 한인 이주민이 사례지역에서 얼마나 경제사회적 지위에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 하에서 다음의 내용들이 조사, 분석될 것이다.

다음으로,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거입지 선호 특성을 분석한다. 즉, 한인 이주민들은 주거입지를 선택할 때, 어떠한 입지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이주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Scott, Coomes and Izyumove (2005)은 한인 이주민은 주거입지 선택에서 한인 네트워크, 교육수준, 소득, 기후, 도시화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 박원석(2012)은 미국 워싱턴 주의 한인 이주민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한인 이주민들은 치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학군 등 환경/쾌적성, 학군 등의 주거 입지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주거입지 요인들은 지역에 따라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요인도 있고, 조사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분석함으로 계층적 지역적 한인 주거지 분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는 향후 한인 이주민들이 주거입지 선택에서 요인들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향후 한인타운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변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앞서 연구모형에서 구축한 연구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254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에 활용된 유효한 설문지는 총 236부다.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 최초 이주 현황에 관한 사항, 주거지 이전에 관한 사항, 현 주거지 및 주거실태에 관한 사항, 주거입지 선호도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와 함께 한인 이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착 및 주거입지, 주택 소유, 한인 네트워크에 대한 심층적인 견해들을 수집하기 위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조사결과는 설문조사를 보완하고 설문분석 결과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선 한인 이주민의 이주과정, 주택 소유구조, 주거실태, 주거입지요인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수행했다. 이를 통해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의 이주경로를 파악하고, 이주단계에 따른 주거입지 선택과정과 주택 소유구조 등의 주거실태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주거입지 선호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지 선택 고려요소에 미친 이주민의 인적 특성과 이주민의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민의 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분산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산분석을 통해 최초 주거지 선택과 입지요인별 선호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민의 인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인 이주민의 주거입지에 미치는 결정요인과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설문결과에 토대로 한 이항로지모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항로지모형은 주거입지 선택을 위한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구축

3) 설문 응답자의 인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33.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20.7%), 40대(19.8%) 순으로 나타난다. 40~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본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자가 57.0%, 여자가 43.0%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혼인 여부를 보면, 기혼이 78.5%, 미혼이 21.5%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본 설문조사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반영한다.

응답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10만~20만 달러 27.0%, 6만~10만 달러 24.5%, 3만~6만 달러

23.2%로 나타나는데,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은 상당수가 소득기준으로 미국 중산층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가구자산 규모를 보면, 30만 달러 미만인 4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따라서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은 가구소득에 비해 자산축적 규모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현재 영어 구사능력을 보면, 보통이 40.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영어능력이 부족하거나 매우부족하다는 응답자들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대졸 70.0%, 대학원졸 17.3%로 나타나, 응답대상 한인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임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미국에서의 학교교육 이력을 보면, 미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

표 4. 응답자의 인적 특성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17	44	47	80	49	237
비율(%)	(7.2)	(18.6)	(19.8)	(33.8)	(20.7)	(100.0)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응답자수	135		102			237
비율(%)	(57.0)		(43.0)			(100.0)
혼인여부	미혼		기혼			합계
응답자수	51		186			237
비율(%)	(21.5)		(78.5)			(100.0)
가구 소득	3만 달러 미만	3만-6만 달러	6만-10만 달러	10만-20만 달러	20만 달러 이상	합계
응답자수	34	55	58	64	26	237
비율(%)	(14.3)	(23.2)	(24.5)	(27.0)	(11.0)	(100.0)
자산 규모	30만 달러 미만	30만-60만 달러	60만-100만 달러	100만-2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상	합계
응답자수	106	42	42	27	20	237
비율(%)	(44.7)	(17.7)	(17.7)	(11.4)	(8.4)	(100.0)
현재 영어 구사능력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능숙	매우 능숙	합계
응답자수	18	41	97	53	28	237
비율(%)	(7.6)	(17.3)	(40.9)	(22.4)	(11.8)	(100.0)
학력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졸	합계
응답자수	30		166		41	237
비율(%)	(12.7)		(70.0)		(17.3)	(100.0)
미국 교육이력	없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합계
응답자수	123	32	15	52	15	237
비율(%)	(51.9)	(13.5)	(6.3)	(21.9)	(6.3)	100.0

는 응답자도 51.9%에 이르지만, 절반 가까이는 어떤 형태든 미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설문 대상 이주민들은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학력자임을 볼 수 있다.

4. 실증분석-1: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1)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

응답자의 최초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응답자의 이주당시 연령을 보면, 20대가 34.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28.3%), 10대 이하(17.3%) 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표 4. 응답자의 이주 시 연령

	미국출생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응답자수	8	41	82	67	29	10	237
비율(%)	(3.4)	(17.3)	(34.6)	(28.3)	(12.2)	(4.2)	100.0

신체적 및 경제활동 능력이 왕성한 30대 이하에서 LA지역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가 미국으로 이주할 시 최초 이주지를 보면, LA지역이 65.3%, LA 이외지역이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의 다수는 LA지역에 최초로 이주하여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3 정도의 응답자는 LA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이후 LA지역으로 주거지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이주동기를 보면, 교육이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삶의 질 26.6%로 나타난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주된 이유가 양질의 교육과 보다 나은 삶의 질 인 것으로 나타난다.

응답자의 최초 이주시 영어구사 능력을 보면, 부족 47.7%, 매우 부족 21.3%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영어능력이 충분하지 상태에서 이주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이주기간을 보면, 20년 이상 48.9%, 10~20년 25.7% 순으로 나타난다. LA지역의 경우 이주역사가 오랜 만큼 이주기간이 긴 이주민들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이주할 시에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면, 도움을 받은 경우가 75.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최초 이주과정에 한인네트워크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최초 주거지를 보면, 백인주류층 42.8%, 한인타운 42.4%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최초 거주지로 한인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인타운을 선택하든지, 양질의 주거환경과 주류사회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이주지별로 최초 주거지

를 보면, 최초 이주지가 LA지역인 경우 한인타운이 57.1%로 가장 높은 반면, 최초 이주지가 LA지역 이외인 경우 한인타운이 14.6%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국 이주지로 LA지역을 선택하는 이주민들은 LA지역이 가진 한인타운의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동기별로 최초 주거지를 보면, 이주동기가 교육인 경우 백인주류층(49.3%)을, 경제적 이유나 삶의 질인 경우 한인타운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초 영어구사 능력별로 보면, 영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한인타운을, 능숙한 경우 백인주류층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지인 도움 여부에 따른 최초 주거지를 보면, 도움을 받은 경우 백인주류층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이주기간별로 보면, 이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인타운 비율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백인주류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민족공동체로서 한인타운의 역할이 20년 전을 기점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작용하여 왔음을 엿볼 수 있다.

2) 응답자의 이주경로 및 현 주거지 현황: 공간적 동화 여부의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의 최초 이주지역이 LA 이외지역인 응답자는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이들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초 이주한 주(state)를 설문한 결과⁵⁾인데, 응답자의 최초 이주지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는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 중부 등 전국적인 범위로 나타난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텍사스 등의 관

표 5. 응답자의 최초 이주현황별 최초 주거지 현황

		최초주거지				전체
		한인타운	백인주류층	유색인종	기타	
최초이주지*	LA지역	88 (57.1)	47 (30.5)	18 (11.7)	1 (0.6)	154 (65.3)
	LA지역 이외	12 (14.6)	54 (65.9)	9 (11.0)	7 (8.5)	82 (34.7)
이주동기	교육	19 (28.4)	33 (49.3)	10 (14.9)	5 (7.5)	67 (28.3)
	경제적 이유	29 (50.0)	26 (44.8)	3 (5.2)	0 (0.0)	58 (24.5)
	삶의 질	32 (50.8)	21 (33.3)	8 (12.7)	2 (3.2)	63 (26.6)
	결혼	10 (32.3)	16 (51.6)	4 (12.9)	1 (3.2)	31 (13.1)
	기타	10 (58.8)	5 (29.4)	2 (11.8)	0 (0.0)	17 (7.2)
최초영여구사	매우부족	30 (60.0)	13 (26.0)	6 (12.0)	1 (2.0)	50 (21.3)
	부족	41 (36.6)	53 (47.3)	15 (13.4)	3 (2.7)	112 (47.7)
	보통	21 (39.6)	24 (45.3)	5 (9.4)	3 (5.7)	53 (22.6)
	능숙	3 (23.1)	9 (69.2)	1 (7.7)	0 (0.0)	13 (5.5)
	매우능숙	5 (71.4)	1 (14.3)	0 (0.0)	1 (14.3)	7 (3.0)
현지인도움	도움받음	74 (41.3)	79 (44.1)	22 (12.3)	4 (2.2)	179 (75.8)
	독자적 결정	26 (45.6)	22 (38.6)	5 (8.8)	4 (7.0)	57 (24.2)
이주기간*	미국출생	2 (25.0)	4 (50.0)	1 (12.5)	1 (12.5)	8 (3.4)
	1년 미만	1 (50.0)	1 (50.0)	0 (0.0)	0 (0.0)	2 (0.8)
	1-5년	16 (76.2)	2 (9.5)	3 (14.3)	0 (0.0)	21 (8.9)
	5-10년	16 (55.2)	12 (41.4)	1 (3.4)	0 (0.0)	29 (12.2)
	10-20년	24 (39.3)	23 (37.7)	11 (18.0)	3 (4.9)	61 (25.7)
	20년 이상	41 (35.7)	59 (51.3)	11 (9.6)	4 (3.5)	115 (48.9)
전체		100 (42.4)	101 (42.8)	27 (11.4)	8 (3.4)	236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표 6. 응답자의 이주지역(LA지역 외 이주자 대상)

지역(주)		최초 이주지		직전 이주지	
		빈도	(%)	빈도	(%)
서부	캘리포니아	10	(16.4)	16	(24.6)
	오리건	6	(9.8)	6	(9.2)
	워싱턴	5	(8.2)	5	(7.7)
	네바다	1	(1.6)	2	(3.1)
	하와이	2	(3.3)	2	(3.1)
	소계	24	(39.3)	31	(47.7)
중부	텍사스	6	(9.8)	4	(6.2)
	일리노이	5	(8.2)	5	(7.7)
	콜로라도	6	(9.8)	5	(7.7)
	캔사스	2	(3.3)	2	(3.1)
	오하이오	2	(3.3)	2	(3.1)
	유타	1	(1.6)	1	(1.5)
소계	22	(36.1)	19	(29.2)	
동부	뉴욕	7	(11.5)	7	(10.8)
	펜실베이아	1	(1.6)	1	(1.5)
	워싱턴DC	1	(1.6)	0	(0.0)
	버지니아	2	(3.3)	2	(3.1)
	플로리다	1	(1.6)	1	(1.5)
	조지아	3	(4.9)	3	(4.6)
	델라웨어	0	(0.0)	1	(1.5)
소계	15	(24.6)	15	(23.1)	
전체		61	(100.0)	65	(100.0)

문지역⁶⁾에 최초 이주한 응답자들이 다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LA 이외지역에서 LA지역으로 정착한 이주민의 경우, LA지역과 인접한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단거리 이주도 상당수 있지만, 뉴욕, 일리노이 등 관문지역에서 LA지역으로 이전한 장거리 이주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이주 이후에 주거지 이동 경험이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94.1%는 미국 이주 이후 1차례 이상 주거지 이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4.9%는 LA 지역 내에서만 주거지를 이동하였고, 39.2%는 LA

표 7. 응답자의 미국 이주 이후 주거지 이동 경험

	주거지 이동 없음	주거지 이동 있음		합계
		LA지역 내	LA지역 외	
응답자수	14	130	93	237
비율(%)	(5.9)	(54.9)	(39.2)	(100.0)

이외지역에서 LA지역으로 이전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LA 이외지역에서 LA지역으로 이전해 들어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이주지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초 이주지와 마찬가지로 관문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전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LA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LA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나타나며, 여타 지역에서 캘리포니아(LA지역 이외)를 경유해서 LA지역으로 이동한 사례도 나타난다.

LA 이외지역에서 LA지역으로 이전해 들어온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LA지역으로 이주한 동기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64.9%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경우, LA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업, 직장 등의 경제적 요인이 주요한 동기이며, 나머지는 부수적인 동기⁷⁾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현재 주거지를 보면, 백인주류층 53.2%, 한인타운 33.3%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초 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한인타운이나 백인주류층 주거지역을 선택하는데, 최초 주거지에 비해 백인주류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가구소득별로 현 주거지를 보면, 가구 월소득 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백인주류층 주거지에, 6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영어구사 능력별로 현 주거지를 보면,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응답자들은 한인타운에, 영어구사 능력이 보통 이상인 응답자들은 백인주류층 주거지에 거주

표 8. 응답자의 LA지역 이주 동기(LA지역으로 이동한 이주자 대상)

	경제적 요인	교육	환경 (자연/문화)	주거비용	한인 네트워크	기타	합계
응답자수	48	8	10	2	2	4	74
비율(%)	(64.9)	(10.8)	(13.5)	(2.7)	(2.7)	(5.4)	100.0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주시 연령별로 현 주거지를 보면, 이주시 연령이 40대 이상인 응답자들은 한인타운에, 이주시 연령이 20대 미만인 응답자들은 백인주류층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주기간별로 현 주거지를 보면,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한인타운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백인주류층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고 자산이 적은 계층은 한인타운에 머물지만, 소득수준이 높고 자산이 많은 계층은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주당시 연령이 높고 이주기간이 짧고 영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민은 한인타운에 머물지만, 이주당시 연령이 낮고 이주기간이 길고 영어 구사가 능숙해진 이주민은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만큼, 이주민의 계층과 이주이력에 따른 현 주거지의 분리 경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공간적 동화이론에서 설명하는 이주민의 주거지 이전 패턴을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주민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는 영어 구사능력도 부족하고 소득과 자산수준도 낮아서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호하지만, 이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고 영어 구사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시도, 즉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것을 LA지역 한인 이주민 사례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동화의 경향은 응답자의 최초주거지별 현 주거지 현황을 통해서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이주지역이 한인타운인 응답자의 32%는 현 주거지를 백인주류층 거주지로 이동하여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LA지역 이주민의 경우 상당수가 최초 주거지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⁸⁾이다. 따라서 LA지역 한인이주민의 상당수는 이주 초기부터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경향도 상당하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Yu and Myers(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최초 이주지가 한인타운인 응답자의 57%는 여전히 한인타운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초 이주지가 백인주류층인 응답자의 13.9%로 한인타운으로 이동한 경향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설명한 다원론을 통해 설명된다. 즉, LA지역 이주민의 일정 집단은 주류계층과의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지 않고 문화적 다원론의 관점에서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에 계속 정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다만, 한인타운 거주자의 상당수는 자발적인 거주자가 아니라 백인주류층에 거주할 능력이 부족한 계층⁹⁾이라는 점에서 다원론의 설명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9. 응답자의 특성별 현 주거지 현황

		현재 주거지				전체
		한인타운	백인주류층	유색인종	기타	
가구 소득*	3만 달러 미만	21 (61.8)	5 (14.7)	6 (17.6)	2 (5.9)	34 (100.0)
	3만-6만 달러	32 (58.2)	16 (29.1)	4 (7.3)	3 (5.5)	55 (100.0)
	6만-10만 달러	14 (24.1)	35 (60.3)	6 (10.3)	3 (5.2)	58 (100.0)
	10만-20만 달러	9 (14.1)	47 (73.4)	5 (7.8)	3 (4.7)	64 (100.0)
	20만 달러 이상	3 (11.5)	23 (88.5)	0 (0.0)	0 (0.0)	26 (100.0)
현재영어구사*	매우부족	11 (61.1)	4 (22.2)	2 (11.1)	1 (5.6)	18 (100.0)
	부족	28 (68.3)	7 (17.1)	5 (12.2)	1 (2.4)	41 (100.0)
	보통	22 (22.7)	60 (61.9)	9 (9.3)	6 (6.2)	97 (100.0)
	능숙	11 (20.8)	37 (69.8)	2 (3.8)	3 (5.7)	53 (100.0)
	매우능숙	7 (25.0)	18 (64.3)	3 (10.7)	0 (0.0)	28 (100.0)
이주시 연령*	미국출생	2 (25.0)	5 (62.5)	1 (12.5)	0 (0.0)	8 (100.0)
	10대이하	9 (22.0)	24 (58.5)	6 (14.6)	2 (4.9)	41 (100.0)
	20대	16 (19.5)	53 (64.6)	8 (9.8)	5 (6.1)	82 (100.0)
	30대	29 (43.3)	33 (49.3)	3 (4.5)	2 (3.0)	67 (100.0)
	40대	16 (55.2)	8 (27.6)	3 (10.3)	2 (6.9)	29 (100.0)
	50대 이상	7 (70.0)	3 (30.0)	0 (0.0)	0 (0.0)	10 (100.0)
이주기간*	미국출생	2 (25.0)	5 (62.5)	1 (12.5)	0 (0.0)	8 (100.0)
	1년 미만	1 (50.0)	1 (50.0)	0 (0.0)	0 (0.0)	2 (100.0)
	1-5년	13 (61.9)	3 (14.3)	5 (23.8)	0 (0.0)	21 (100.0)
	5-10년	19 (65.5)	9 (31.0)	1 (3.4)	0 (0.0)	29 (100.0)
	10-20년	24 (39.3)	30 (49.2)	4 (6.6)	3 (4.9)	61 (100.0)
	20년 이상	20 (17.2)	78 (67.2)	10 (8.6)	8 (6.9)	116 (100.0)
전체		79 (33.3)	126 (53.2)	21 (8.9)	11 (4.6)	237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표 10. 응답자의 최초주거지별 현 주거지 현황

		현재 주거지				전체
		한인타운	백인주류층	유색인종	기타	
최초 거주지	한인타운	57 (57.0)	32 (32.0)	6 (6.0)	5 (5.0)	100 (100.0)
	백인주류층	14 (13.9)	79 (78.2)	5 (5.0)	3 (3.0)	101 (100.0)
	유색인종	6 (22.2)	10 (37.0)	10 (37.0)	1 (3.7)	27 (100.0)
	기타	1 (12.5)	5 (62.5)	0 (0.0)	2 (25.0)	8 (100.0)
전체		78 (33.1)	126 (53.4)	21 (8.9)	11 (4.7)	236 (100.0)

3) 이항로짓분석: 이주민의 현 주거입지 결정요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의 현 주거입지가 된다. 이에 따라 현 주거지역이 한인타운인 경우의 모형과 백인주류층인 경우의 모형, 이상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영어구사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미미국교육이력, 더미기혼) 변수,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자산규모, 더미주택소유) 변수,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이주지LA, 더미미국출생, 더미이주기간1-5년,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

각각의 이항로짓모형에서 회귀모형에 포함될 독립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후진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활용하였다. 여기에 Hosmer와 Lemeshow 검정결과와 독립변수 간의 상관

관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log \frac{P}{1-P}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beta_0 + \sum_{k=1}^n \beta_k X_k$$

종속변수: 응답자의 현재 주거입지(① 한인타운, ② 백인주류층)

독립변수($X_1 \sim X_n$):

-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영어구사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미미국교육이력, 더미기혼)
- ②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자산규모, 더미주택소유)
- ③ 응답자의 이주 특성(이주시연령, 더미최초이주지LA, 더미미국출생, 더미이주기간1-5년,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한인 이주민의 현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1과 같다. 첫째로, 현 주거입지가 한인타운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가구소득, 이주시연령, 더미주택소유,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 주거지로 한인

타운을 선택할 승산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0.66배로 낮아지며, 이주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1.80배 높으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0.24배 낮으며, 이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0.2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저소득층, 이주당시 연령이 높은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현 주거입지가 백인주류층인 경우의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자산규모, 이주시연령, 더미택소유, 더미기혼, 더미대졸 이상, 더미이주기간 1-5년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현 거주지로 백인주류층 거주지를 선택할 승산은 가구자산이 많을수록 2.00배로 높아지며, 이주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0.67배로 낮아지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4.91배 높으며, 기혼자인 경우 0.34배 낮으며, 대졸 이상인 경우 14.39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1-5년인 경우 0.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자산층, 이

주당시 연령이 낮은 집단, 주택을 소유한 집단, 미혼, 고학력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실증분석-2: 이주민의 주택소유 및 주거 입지요인 선호 특성 분석

1) 이주민의 주택소유 구조

응답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구조를 보면, 자가주택이 50.4%, 임대주택이 49.6%인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13.1%로 나타나, 응답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응답자는 총 63.5%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92.8%가 자가주택인 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2.9%만이 자가주택인 것으로 나

표 11. 이항로짓분석 결과-1: 현 주거입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

		B	표준오차	Wals	유의확률	Exp(B)
현 주거지 한인타운	가구소득**	-0.423	0.165	6.563	0.010	0.655
	이주시 연령**	0.589	0.157	14.032	0.000	1.802
	더미주택소유**	-1.415	0.366	14.918	0.000	0.243
	더미대졸 이상	-0.869	0.501	3.009	0.083	0.419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1.289	0.366	12.381	0.000	0.276
	상수항	0.486	0.722	0.454	0.501	1.626
현 주거지 백인주류층	자산규모**	0.697	0.179	15.127	0.000	2.007
	이주시 연령*	-0.408	0.168	5.876	0.015	0.665
	더미주택소유**	1.592	0.439	13.126	0.000	4.911
	더미기혼*	-1.091	0.526	4.308	0.038	0.336
	더미대졸 이상**	2.667	0.820	10.570	0.001	14.394
	더미이주기간1-5년**	-2.172	0.804	7.294	0.007	0.114
상수항*	-2.397	0.979	5.991	0.014	0.091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표 12. 응답자의 특성별 주택 소유구조

		주택 소유구조			전체
		자가주택	임대주택 (자가주택 유)	임대주택 (자가주택 무)	
주택 형태*	단독주택	103 (92.8)	7 (6.3)	1 (0.9)	111 (100.0)
	공동주택	16 (12.9)	23 (18.5)	85 (68.5)	124 (100.0)
현재 주거지*	한인타운	13 (16.5)	14 (17.7)	52 (65.8)	79 (100.0)
	백인주류층	97 (77.0)	11 (8.7)	18 (14.3)	126 (100.0)
	유색인종	5 (23.8)	6 (28.6)	10 (47.6)	21 (100.0)
	기타	4 (40.0)	0 (0.0)	6 (60.0)	10 (100.0)
가구 소득*	3만 달러 미만	6 (17.6)	7 (20.6)	21 (61.8)	34 (100.0)
	3만-6만 달러	9 (16.7)	9 (16.7)	36 (66.7)	54 (100.0)
	6만-10만 달러	31 (53.4)	9 (15.5)	18 (31.0)	58 (100.0)
	10만-20만 달러	47 (73.4)	6 (9.4)	11 (17.2)	64 (100.0)
	20만 달러 이상	26 (100.0)	0 (0.0)	0 (0.0)	26 (100.0)
영어 구사능력*	매우부족	0 (0.0)	5 (27.8)	13 (72.2)	18 (100.0)
	부족	10 (24.4)	8 (19.5)	23 (56.1)	41 (100.0)
	보통	59 (61.5)	12 (12.5)	25 (26.0)	96 (100.0)
	능숙	38 (71.7)	4 (7.5)	11 (20.8)	53 (100.0)
	매우능숙	12 (42.9)	2 (7.1)	14 (50.0)	28 (100.0)
이주기간*	미국출생	2 (25.0)	0 (0.0)	6 (75.0)	8 (100.0)
	1년 미만	0 (0.0)	2 (100.0)	0 (0.0)	2 (100.0)
	1-5년	4 (19.0)	6 (28.6)	11 (52.4)	21 (100.0)
	5-10년	6 (20.7)	4 (13.8)	19 (65.5)	29 (100.0)
	10-20년	31 (50.8)	9 (14.8)	21 (34.4)	61 (100.0)
	20년 이상	76 (66.1)	10 (8.7)	29 (25.2)	115 (100.0)
전체		119 (50.4)	31 (13.1)	86 (36.4)	236 (100.0)

주: *는 χ^2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유의

타난다.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는 단독-자가주택, 공동-임대주택으로 대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주거지별로 보면, 한인타운 거주자는 대다수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면, 백인주류층 거주자는 77.0%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월소득 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자가주택, 6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가구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어구사 능력별로 보면,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응답자들은 임대주택을, 영어구사 능력이 능숙한 응답자들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민에게 영어 구사능력은 소득수준과 주택보유 능력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기간별로 보면,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임대주택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들은 자가주택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이주 이후 10년을 기점으로 자가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LA지역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면서, 영어구사 능력이 능숙해지고, 소득수준이 6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4) 이항로짓분석: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결정요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자료를 토대로 한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의 종속변수는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자가주택 거주 결정요인 모형과 주택소유 결정요인의 모형, 이상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영어구

사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미미국교육이력, 더미기혼) 변수,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자산규모) 변수,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이주지LA, 더미현주거지백인, 더미현주거지한인타운, 더미미국출생, 더미이주기간1-5년,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항로짓 분석을 통해 현재 주거입지에 영향을 준 변수들을 도출할 수 있다.

$$\begin{aligned} \log \frac{P}{1-P}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 &= \beta_0 + \sum_{k=1}^n \beta_k X_k \end{aligned}$$

종속변수: 응답자의 현재 주거입지(① 자가주택 거주, ② 주택소유)

독립변수($X_1 \sim X_n$):

-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현재영어구사능력, 더미대졸 이상, 더미미국교육이력, 더미기혼)
- ② 응답자의 재무적 특성(가구소득, 자산규모)
- ③ 응답자의 이주 특성(더미최초이주지LA, 더미현주거지백인, 더미현주거지한인타운, 더미미국출생, 더미이주기간 1-5년, 더미이주기간5-10년, 더미이주기간10-20년,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표 13과 같다. 첫째로, 자가주택 거주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가구소득, 더미현주거지백인주류층,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응답자가 자가주택에 거주할 승산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2.16배로 높아지며, 현 거주지가 백인주류층인 경우 5.91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소득층, 백인주류층 거주자, 이주기간이 20년 이상인 집단에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주택소유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5%에서 자산규모, 더미

표 13. 이항로지분분석 결과-2: 주택소유 구조에 영향을 미친 요인

		B	표준오차	Wals	유의확률	Exp(B)
자가거주	가구소득**	0.771	0.179	18,666	0.000	2.163
	더미대졸 이상	1.472	0.869	2,872	0.090	4.359
	더미현주거지백인주류층**	1.777	0.363	23,926	0.000	5.913
	더미이주기간10-20년	0.906	0.490	3,415	0.065	2.475
	더미이주기간20년 이상*	1.137	0.468	5,900	0.015	3.118
	상수항**	-5.410	0.972	31,009	0.000	0.004
주택소유	더미현주거지백인주류층**	1.191	0.386	9,498	0.002	3.290
	더미이주기간5-10년*	-1.126	0.546	4,248	0.039	0.324
	자산규모**	1.647	0.290	32,246	0.000	5.193
	상수항**	-2.663	0.439	36,813	0.000	0.070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독립변수

현주거지백인주류층, 더미이주기간5-10년, 독립변수가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응답자가 주택을 소유할 승산은 가구자산이 많을수록 5.19배로 높아지며, 현 거주지가 백인주류층인 경우 3.29배 높으며, 이주기간이 5-10년인 경우 0.32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자산층, 백인주류층 거주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분산분석: 이주민 특성에 따른 주거 입지요인 선호도 분석

응답자들이 향후 주택선택시 고려하는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 입지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 주거 입지요인별 중요도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했는데, 선호도 정도에 따라 1~5점의 척도점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을수록 척도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주거 입지요인별 선호도 분석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향후 주택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입지요인은 치안/안전성(4.08), 현 주택가격(임대

료)(3.97), 자연환경(3.93), 향후 시세차익(3.79) 주택 내부시설(3.73) 순으로 나타난다¹⁰⁾. 따라서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은 안전과 쾌적성과 같은 환경요인과 주택가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인 커뮤니티(3.04), 주류층네트워크(2.77), 대중교통 접근성(2.46)과 같은 입지요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거 입지요인의 중요도가 이주민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는 이러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로, 현재 주택가격이나 향후 시세차익과 같은 경제성 관련 입지요인은 고소득층, 고자산층, 현재 백인주류층 거주자, 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계층은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데, 향후에 경제적 성과가 더 큰 주거지로 이동을 바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상류층 한인 이주민의 경우, 향후에도 더 큰 경제적 성과가 가능한 상류층 주거지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런 가운데 한인 이주민간의 주거지 계층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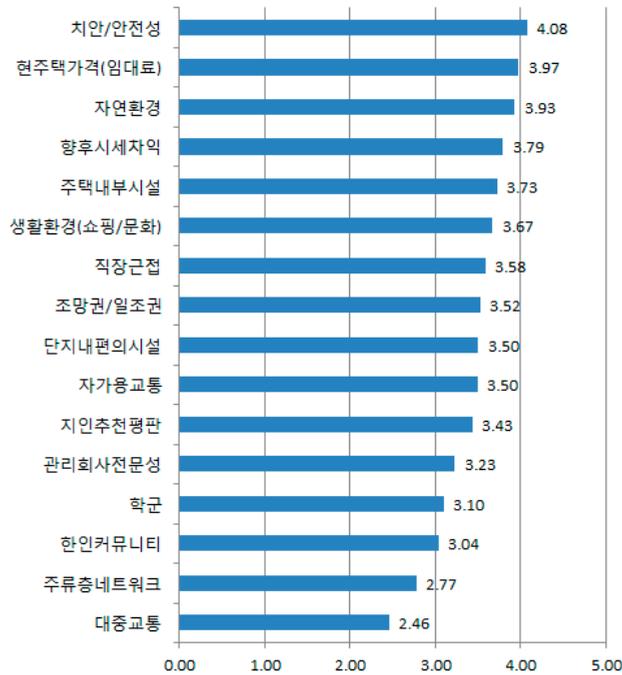


그림 3. 응답자가 향후 주택선택 시 선호하는 입지요인에 대한 리커트 척도점수

둘째로, 학군 입지요인은 40대, 기혼자, 대학원 졸업자, 단독-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학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자연환경 입지요인은 집단간 선호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입지요인으로서, 50대, 고소득층, 고자산층, 고학력자, 영어 능숙자, 이주기간이 오랜 자, 단독-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고령자층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로, 접근성 입지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 입지요인은 20대이하, 저소득층, 고졸이하, 영어능력 부족자, 한인타운 거주자

집단에서, 자가용 교통 접근성 입지요인은 고자산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집단별 교통수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젊고 소득수준이 낮고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층으로서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고소득층은 자가용 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층으로서 자가용 교통의 접근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주택 내부시설, 단지내 편의시설, 조망권/일조권과 같은 주택여건 입지요인은 대체적으로 고소득층, 고자산층, 고학력자, 단독-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집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저소득층보다 주택내부 시설 및 여건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4. 분산분석 결과: 이주민의 특성별 입지요인의 중요도

	연령	성별	혼인	가구소득	가구자산	학력	현재 영어능력	미국교육	이주기간	현주거지	주택소유	주택형태
경제 성	원주택가격 (임대료)			* (20만 이상↑)							** (자가↑)	** (단독↑)
	향후시세차익			** (20만 이상↑)	* (200만 이상↑)					** (백인주류↑)	** (자가↑)	** (단독↑)
	학군	* (40대↑)	* (기혼↑)			* (대학원졸↑)					** (자가↑)	* (단독↑)
지역 환경	생활환경 (쇼핑/문화)				* (200만 이상↑)							
	자연환경	* (50대↑)		** (20만 이상↑)	** (200만 이상↑)	** (대학원졸↑)	** (능숙↑)	* (대학원↑)	* (20년 이상↑)	** (백인주류↑)	** (자가↑)	** (단독↑)
	치안/안전성									* (백인주류↑)	*	
접근 성	대중교통	* (20대 이하↑)		* (3만 미만↑)		** (고졸↑)	** (부족↑)			** (한인타운↑)		
	자가용교통				** (200만 이상↑)							
	직장근접											
주택 여건	주택내부시설			** (20만 이상↑)	* (200만 이상↑)	* (대학원졸↑)					* (자가↑)	* (단독↑)
	단지내편의시설			** (20만 이상↑)	** (200만 이상↑)						** (자가↑)	
	주방권/일조권			** (20만 이상↑)	** (200만 이상↑)			** (대학원↑)			** (임대소유↑)	* (단독↑)
네트 워크	관리회사전문성		* (기혼↑)		* (200만 이상↑)							
	한인커뮤니티	* (여성↑)		** (3만 미만↑)		** (고졸↑)	** (부족↑)	* (없음↑)		** (한인타운↑)		
	주류층네트워크		* (기혼↑)		** (200만 이상↑)	* (대출↑)					** (임대소유↑)	
										* (자가↑)		

주: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 **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

여섯째로, 한인커뮤니티 입지요인의 경우, 여성, 저소득층, 고졸이하, 영어능력 부족자, 현재 거주지가 한인타운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인타운은 소득수준과 학력이 낮고 영어능력이 부족한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들이 계속적으로 정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일곱째로, 주류층 네트워크 입지요인의 경우, 기혼자, 고자산층, 고학력자, 주택 소유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인타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즉, 한인타운은 이주민들의 영구적인 거주지보다는 이주민이 정착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경우 백인주류층 거주지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하거나 고령의 이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한인타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인 이주민들간의 계층간 주거지 분리도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6. 종합적 검토 및 결론

1) 종합적 검토

(1)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LA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와 주거입지 선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보면, 초기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택하지만 이후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주류사회의 네트워크가 있는 곳으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즉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최초정착지로 백인 주류층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유형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이주민들은 초기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이주당시 연령이 높은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택한 반면, 고자산층, 이주당시 연령이 낮은 집단, 주택을 소유한 집단, 미혼, 고학력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백인주류층을 주거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63.5%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면서, 영어구사 능력이 능숙해지고, 소득수준이 6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 백인주류층 거주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로, LA지역 한인 이주민이 선호하는 주거입지요인으로는 치안/안전성, 현주택가격(임대료), 자연환경, 향후 시세차익, 주택내부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주거 입지요인의 선호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소득층, 고자산층, 고학력자, 현재 백인주류층 거주자, 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은 경제성, 자연환경, 주택 내부

시설의 우수성, 백인 주류층 네트워크와 같은 입지요인을 더 선호하는 반면, 저소득층, 저학력자, 한인타운 거주자 집단은 대중교통 접근성, 한인커뮤니티와 같은 입지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 간에 주거지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2) LA지역 한인 이주민 정착경로의 유형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경로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형적인 공간적 동화의 경로를 따라가는 유형이다. 이들 이주민들은 최초 정착지로 한인타운을 선택하지만, 항구적인 거주지가 아닌 일시적인 거주지로 선택한다. 그러나 이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영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백인 주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공간적 동화를 시도한다.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이주민들은 이주당시 연령이 30대 이하인 집단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공간적 동화의 시점은 대체적으로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서, 가구소득이 6만 달러 이상이 되고, 자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시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유형은 민족공동체(ethnic enclave)를 지향하는 유형이다. 이들 이주민들은 한인타운을 최초 이주지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하여 항구적으로 정착한다. 이들 집단은 주로 이주당시 연령대가 높아서 영어능력이 개선되지 않는 집단과, 정착과정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 못해 여전히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는 집단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유형은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다. 이들 이주민들은 최초 주거지부터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백인주류층 거주지역에 정착하는, 즉, 이주 초기부터 한인타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는 패턴

을 보인다. 이들 집단은 이주동기가 교육이나 삶의 질 개선이기 때문에, 곧바로 양질의 교육과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집단은 한인타운을 주거지로 선택을 하지는 않지만, 이주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정착경로에 따른 한인타운의 역할과 전망

지금까지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이주 및 정착경로를 유형화했는데, 각 유형별로 이주민들은 한인타운을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인타운을 공간적 동화 유형은 초기 정착지로,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은 항구적 거주지로,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은 정보공유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공간적 동화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인타운은 이주민들의 영구적인 거주지보다는 이주민이 정착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인타운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영어능력이 부족하거나 고령의 이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한인 이주민 계층간의 주거지 분리도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LA지역에서 한인타운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주민들의 공간적 동화 경향에 기인한 바 크지만, LA지역 한인타운의 고유한 특징에도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우선, LA지역 한인타운은 위치가 LA 다운타운 부근에 입지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해 있다. 따라서 한인타운의 주요 기능은 한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공동체로서의 한인타운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LA 한인타운 지역의 주택들은 공동 임대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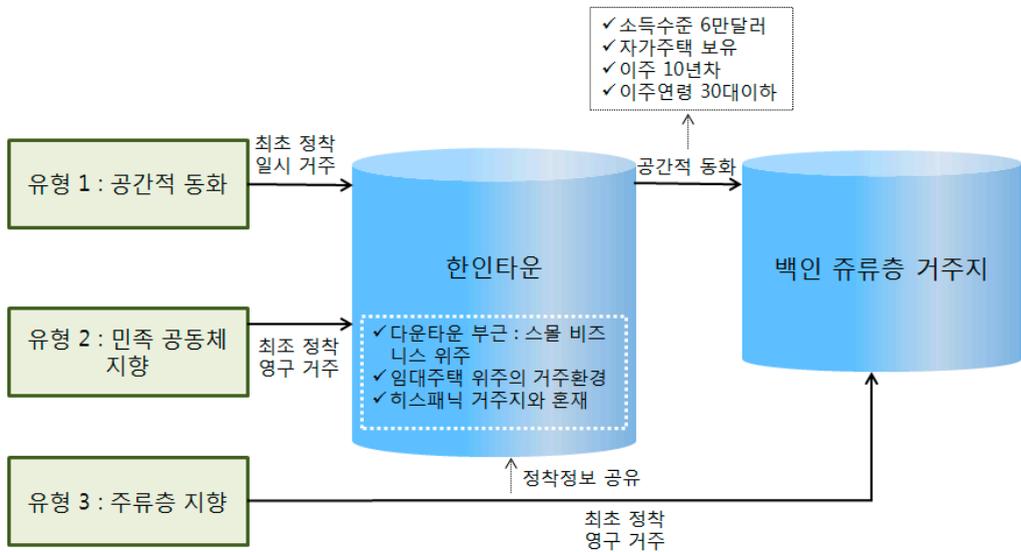


그림 4. LA지역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유형화

인 이주민들은 이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이주민들이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시점에서는 한인타운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LA 한인타운 지역은 원래 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였는데, 한인들이 침투하면서 한인타운으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히스패닉 거주지와 한인타운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종집단의 혼재지역의 특징 때문에 한인타운은 항구적인 주거지로서의 매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한인타운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인 이주민들은 향후 주거지 선정과정에서도 강한 공간적 동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주민 계층에 따른 주거지 분리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시적 주거 인큐베이터로서의 한인타운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간적 동화 과정에서 백인중류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인 주거집적지, 즉 한인타운이 형성될 가능

성도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의 한인타운과 새로운 한인타운간의 경쟁과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한인네트워크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이전도 예상된다.

2)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LA지역 한인 이주민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주거입지 선택과정에서 적극적인 주택보유 의지와 주류계층으로의 공간적 동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인 이주민의 정착경로 패턴을 살펴보면, 한인 이주민들이 주거입지를 통해 주류사회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계층상향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신규로 진입하는 한인 이주민의 입지선택에도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이주민의 정착과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한인네트워크

로서 한인타운의 역할과 입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한 민족 네트워크로서 한인커뮤니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성과는 미국의 한인 이주민뿐 만 아니라, 유럽, 호주, 일본, 중국 등의 한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미국의 이주민 주거입지 선행연구에 대한 설명은 박원석(2012)의 내용을 요약, 재인용한 것이다.
- 2) 박원석(2012)에서 재인용함
- 3)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윤인진(2012)를 주로 참조하였다.
- 4) 이외에도,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소수민족집단으로서 동화와 분리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대안적인 적응방식을 보인다는 분절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 theory)이 있으며, 서로 다른 민족집단이 장기간의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수준의 민족문화와 개인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문화변용론(acculturation theory)이 있다. 하지만 이들 이론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소수 이론에 그치고 있다.
- 5) 최초 이주한 주에 대한 설문응답은 결측치가 많았고, 이에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만을 가지고 통계 분석하였다.
- 6) Waldorf, Florax and Beckhusen(2008)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최초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지역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일리노이 주를 들었다.
- 7) 박원석(2012)의 연구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 경우 이주동기 중 가장 큰 요인이 환경적 매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주지역에 따라 주요한 이주동기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8) 이는 최초주거지가 백인주류층인 응답자의 78.2%가 현 주거지 역시 백인주류층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9) 이는 한인타운 거주자의 다수는 임대주택 거주자이라는 점인데, 이러한 사실은 이주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10) 이러한 결과는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한 입지요인 중요도에 대한 연구(박원석, 2009b)와 일정 부분

일치한다.

참고문헌

- 김영성, 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국토지리학회지, 40(4), 497-512.
- 박원석, 2009, 수요자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 REITs의 특성 및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미국 시애틀의 Ballinger Commons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25(4), 83-106.
- 박원석, 2011, 부동산입지론, 양현사.
- 박원석, 2012, 한인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및 주거입지 선호 특성-미국 워싱턴 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660-675.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이승철·이의한, 2011, 미국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장과 공간적 분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4(2), 225-239.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수열, 2010, 이민자의 주거 집중이 자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44(1), 25-34.
- Åslund, O., 2005, Now and forever? Initial and subsequent location choices of immigrant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2), 141-165.
- Park, J. and J. Iceland, 2011, Residential segregation in metropolitan established immigrant gateways and new destinations, 1990-2000, *Social Science Research*, 40(3), 811-821.
- Scott, D. M. and P. A. Coomes and Alexei I. Izyumove, 2005, The Location Choice of Immigrants among U.S. Metro Area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45(1), 113-145.
- Waldorf, B. S., R. J.G.M. Florax, and J. Beckhusen, 2008, Spatial Sorting of Immigrants Across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United States: Changing Pat-

- terns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Since the 1990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0(5), 1312-1318.
- Yu, Z., 2006, A Different Path to Homeownership: The Case of Taiwanese Immigrants in Los Angeles, *Housing Studies*, 21(4), 555-579.
- Painter, G., L. Yang, and Z. Yu, 2004. Homeownership Determinants for Chinese Americans: Assimilation, Ethnic Concentration and Nativity, *Real Estate Economics*, 32(3), 509-539.
- Zorlu A. and C. H. Mulder, 2008, Initial and Subsequent Location Choice of Immigrants to the Netherlands, *Regional Studies*, 42(2), 245-264.
- Damm, A. P. 2009, Determinants of Recent Immigrant's Location Choices: Quasi-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2, 145-174.
- De Coulon, A. and François-Charles Wolff, 2010, Location intentions of immigrants at retirement: stay/return or go 'back and forth?', *Applied Economics*, 42(26), 3319-3333.
- Yu, Z, and D. Myers, 2007, Convergence or divergence in Los Angeles: Three distinctive ethnic patterns of immigrant residential assimil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36(1), 254-285.
- 교신: 박원석,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부동산학과, 전화: 053-850-6381, 이메일: wspark@daegu.ac.kr
- Correspondence: Wonseok Park, Department of Real Estate, Daegu University, Jillyang, Gyeongsan, Gyeongbuk 712-714, Korea, Tel: 82-53-850-6381, e-mail: wspark@daegu.ac.kr
- 최초투고일 2015년 2월 2일
수정일 2015년 2월 23일
최종접수일 2015년 2월 25일